전력 구매 단가 안정세에 한숨 돌린 한전

계통한계가격 ㎾h 당 124.5원…전기구매비 절반 가까이 감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에 SMP 변동 가능성 커 추이 지켜봐야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MP 가격은 한때 ㎾h 당 26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120원대로 내려 앉았는데, 한전 매출의 60%가 넘는 부분을 전기판매 사업이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SMP 역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중평균 SMP는 1㎾h 당 124.50원으로 전월 동기(128.78원)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 12월(1㎾h·267.63원)에 비해서는 53.4% 감소한 수치다.

SMP는 한전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를 가리키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의 전체 매출 중 63%가 전기판매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전기구매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SMP 가격은 지난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전력 발전에 필요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등이 크게 뛰면서 끝없이 치솟았던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통합 SMP 기준 1㎾h 당 267.63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지난해 2월까지도 254원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후 점차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어 지난해 4월 1㎾h 당 164.86원으로 100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하락해왔다.

SMP 하락은 지난 2022년 말께 국제 정세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치솟았던 국제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2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지만,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안정됐다.

이에 따라 전력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SMP 역시 대폭 하락했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2달째 지속적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만큼, 전력 생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SMP 역시 근시일 내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평균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89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91.1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6.91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유가는 지난 2월 5일 배럴당 평균 77달러 선으로 최소값을 기록한 뒤 2달이 넘도록 상승하고 있다.

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등 국제 정세 악화 및 멕시코의 석유 수출 감축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약 2개월 뒤 LNG 역시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상반기 중에는 SMP 역시 상승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주 수입원이 전기판매 사업인 만큼 SMP가 오르게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최우선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국제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실시간 사고 대응"

단말기 987대 확충·매뉴얼 신설 등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공기업 최초로 맞춤형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도입해 통합형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PS-LTE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관련기관들의 원활한 통신 및 재난현장 지휘강화를 위해 정부가 구축한 700MHz 대역의 무선망이다.

한전은 전국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전력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PS-LTE를 본사 운영에 알맞은 형태로 도입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PS-LTE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재난관리용, 현장안전관리용으로 구분해 장비 확보기준, 통합 운영절차, 매뉴얼 등을 자체 신설했다.

또 한전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291대 단말기를 987대로 대폭 확충해 전국 규모의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통신망의 수직적인 보고체계를 PS-LTE를 활용한 수평적인 보고체계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 체계 고도화와 함께 단말기 733대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난 사고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설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최우수' 획득

보육환경 부문 호평

한전KDN이 직접 운영하는 '한전KDN 어린이집'이 2023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9일 한전KDN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는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관리 등 4개 영역에서 18개 지표, 59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한전KDN 어린이집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환류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지속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전KDN 어린이집은 한전KDN 본사에 위치해 한전KDN이 직접 관리하는 운동장과 산책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보육환경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전KDN어린이집 아이들이 한전KDN이 직접 관리하는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평가에서 한전KDN의 지원과 교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하에 교직원 전문성 고양 등에 힘써 지역 내 최고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초·중·고 교사 대상 직무연수

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운영
미네르바 교육·ALC 체험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은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켄텍에서 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관리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직무연수 프로그램에는 전남지역 중등학교 관리자 30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켄텍이 추진 중인 교육혁신 모델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시작해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과정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연수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존에 진행됐던 단발성 연수가 아닌 1년 단위의 장기간 연수로 설계돼 켄텍 교수진과 지역 소재 학교 교사가 함께 교육현장에 알맞은 수업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관리자들은 미래교육, 공학교육, 미네르바교육, 디지털교육 등 켄텍의 미래교육 선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켄텍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학습분석 시스템'을 구비한 AI 강의실인 'ALC(Active Learning Classroom)'를 체험하고,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미네르바 토론 수업'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경 켄텍 학습디자인연구소장은 "켄텍은 신생 대학으로서 타대학이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켄텍이 추구하는 교육 모델을 지역 소재 학교에 맞춰 전남지역만의 교육모델을 찾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켄텍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지역 소재 초등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